

세기말 유행경향으로 나타난 아르누보 패션

최 유 진 · 유 영 선 *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The Art Nouveau Fashion in Modern Fashion Trend

Yoo-Jin Choi · Young-Sun Yoo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t nouveau fashion represented in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are naturalism, medievalism, exoticism, and decadentism. The influences of art nouveau were seen in the fashion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 S-curve silhouette and organic curve motives printed on hems. Art nouveau has reappeared in modern fashion trends such as romanticism, decadence, ecology, ethno, and fusion. To sum up, art nouveau fashion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s classified into four shapes.

First, art nouveau appears in naturalism. Influenced by the arts and crafts movements and naturalistic trend, it has reappeared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n themes like 'art & craft'. This expression technique is to objectify nature and to represent art nouveau textiles. Second, S-curve silhouette appeared at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s fashion with the art nouveau influenced rejection of the bustle style.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design, emphasizing the hip, is represented in fashion collections as a phenomenon of romanticism. Especially the art nouveau silhouette of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does not represent S-curve silhouette. But, it emphasizes the hip only. Third, Art nouveau exoticism by symbolism is influenced by Chinese and Celtic art, the Middle Ages, and the exoticism that appeared in fashio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 harem style, kimono style, and turbans. Exoticism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s expressed by optical flower prints and successive floral print arrangements as seen in the themes of ethno and fusion. Fourth,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decadence is influenced by the pre-raphaelite brotherhood. This is expressed in the images of vampires, and symbolism expressing grotesque insect motives and decadent

successive curves.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decadence is represented in fashion : grotesque insect motives, tattoo looks of organic curve motives, celtic hair style, see-through fashion, grotesque make-up. Besides hair style techniques, decadent expressions applying art nouveau paintings also appeared.

Finally, art nouveau fashion represented as a fashion trend at the turning point to the new millennium is one of great significance as an organic, an environment-intimate and continuance-possible design in a future.

Key Word : 아르누보, 자연주의, 데카당스, 이국취향

I. 서론

19세기말은 기계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회의와 불안의 시대였으며 새로운 것을 갈구하던 예술가들을 자연으로 눈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세기말의 탐미적 유태주의적 성향과 어우러져 아르누보라는 신예술운동으로 이어졌다.¹⁾

아르누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애'에 기본 동기를 두고 새로움을 향한 욕구로 가득 채워진 예술운동이었다. 이것은 전환기의 모든 예술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의 기본 이념을 제공하였다.²⁾

20세기말을 앞둔 현재의 상황은 기계 문명의 급속한 사회 침투에 따른 인간 심리에 한층 불안감을 더한 19세기 후반의 시대환경과 유사하여, 세계 정치 구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 버블 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위축과 다음 세기에의 기대감, 환경 파괴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등 정신과 물질이 분할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도 나타나 세기말 유행경향이 되고 있다.

아르누보 패션은 이러한 배경으로 20세기말에 새로이 대두되어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의 콜렉션에서 영감의 근원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기말 패션으로 새로이 등장된 아르누보 패션을 주제로 아르누보 발생 당시의 1890년대 아르누보 예술과 패션 특성을 1990년대에 나타난 아르누보 패션 경향과 트렌드를 관련시켜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기말 패션으로서의 아르누보 패션을 재조명하고 현대 패션의 트렌드로서의 아르누보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르누보에 대한 이전 연구와 관련 서적을 통해 그 개념과 배경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르누보 패션 작품의 실증적인 자료분석은 Collections, Collezioni, Fashion News, Vogue, Mode et Mode 등의 패션 전문지에 나타난 작품들을 사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II. 아르누보의 개념과 특성

1. 아르누보의 개념

아르누보는 신예술이라는 뜻이며 대략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서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개화한 예술운동 양식의 총칭이며⁴⁾, 아르누보라는 용어는 1895년에 개점한 파리의 사무엘 빙(Samuel Bing)의 상점(L'art Nouveau)에서 유래한다. 아르누보의 독일어인 '유겐트 스틸(Jugendstil)'은 1896년 뮌헨에서 창간된 예술신문 '유겐트'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탈리아어의 '스틸레 리베르티(Stile Liberty)'는 당시 런던의 스트라트가에 있었으며 1890년대에 아르누보식 디자인에 맞는 재료와 색채를 다루었던 실내 장식 전문점 '리버티 상회(Liberty's Co.)'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⁵⁾

19세기말 예술가들을 온통 열병에 휩싸이게 했던 아르누보는 20세기에 들어서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포스터와 잡지, 그래픽 디자인으로 아르누보가 대중화되긴 했지만 대량 생산으로 자연히 그 질은 떨어졌다. 장식의 본질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인 장식에만 치중하며 그 가치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작가와 주문자의 취미 수준에만 머물고 합리적인 근대 사회에 발맞추지 못해 벌어진 결과였고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자연히 도태되었다. 그러나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고취함으로써 현대의 반인상주의 특징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특히 아르누보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고갱(Paul Gauguin)이 추구했던 환상성은 현대 미술 전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도 아르누보는 그 소재와 방법, 의의를 지향하는 20세기 디자이너들에 의해 변모, 발전하고 있다.⁶⁾

2.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

아르누보 양식은 과거 양식에 근거를 두고 윤리적으로 발전해 온 양식이 아니다. 아르누보의 작가들은 전통 양식의 반복이나 모방에 대해 반발했으며 자유로운 개성의 예술을 위해 더 이상 한정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전통적 역사주의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를 보인 아르누보는 활기찬 모든 유기적 생명 안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조건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기체로부터 비롯된 형태를 다루었으며 이 결과로서의 새양식을 창조하려고 분투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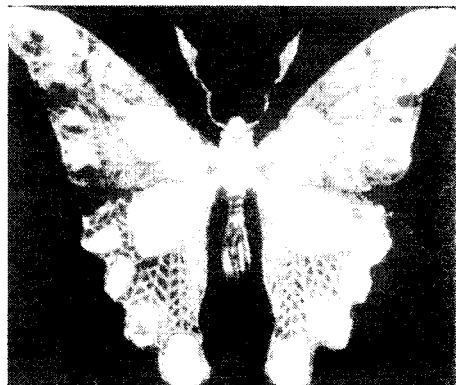
아르누보의 배경이 된 미술 공예 운동의 영향으로 자연주의적 경향이, 일본 미술의 영향으로 이국 취향이, 라파엘전파는 중세풍의 특성에 영향을 끼

치고 그리고, 심미주의와 상징주의는 세기말 데카당스적인 아르누보 특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르누보의 특성을 자연주의, 이국 취향, 데카당스, 중세풍의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1) 자연주의

19세기 유럽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제가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여, 자연은 인간의 생의 터전인 동시에 인간이 속한 모든 환경으로서 인간의 미의식과 예술 활동의 모체가 되어 왔다. 이 시기의 자연주의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었고 반심미적, 반낭만적이었다. 19세기말이래, 사회구조의 격변, 자아의 확립과 개성의 주장, 자유의 존중이라는 시대적 의식은 주관적 표현의 정신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의 철학적 바탕 위에서 새로운 예술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지배적인 예술양식이었던 아르누보 스타일은 자연에 영감의 원천을 두고 자연의 근본 구조 및 원초적인 힘, 그리고 자연의 무한한 창조활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물이나 식물 등의 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함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⁸⁾

아르누보는 인체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찰에서 얻는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물결치고 서로 교착하는 곡선을 통해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표출시켰다(그림 1). 이와 같이 표현이



<그림 1> René Lalique <Art Nouveau Jewelry, 1900>
Art Nouveau, p.65

풍부한 아르누보는 선, 색채, 형태의 장식성과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일상적 외양을 놀랄 만큼 자유롭게 다룸으로서 세기말의 표현주의와 관련을 맺게 되기도 한다.

2) 이국취향

교통수단의 발달은 새로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아르누보 예술가들에게 좋은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아르누보가 이국적 경향을 띠게 하였다.⁹⁾ 이국취향이란 자기 나라나 민족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풍물과 정서를 동경하거나 그것을 통해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국취향이 하나의 유행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문화는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것이며 다른 문화의 형태와 특성을 동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크뢰버(A. L. Kroeber)의 주장에서와 같이 문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이 시기 이국주의의 주 요소는 중국이나 일본의 동양적 요소였고 당시로부터 먼 거리에 있던 켈트와 중세의 고딕적 요소, 바로크적 요소, 그리고 로코코적 요소를 포함하였다.¹⁰⁾

아르누보의 조형적 특징은 일본 판화의 영향에서 기인하는 평면적 표면 패턴의 추구이다. 이러한 효



<그림 2> Vincent Van Gogh<Portrait of Péré Tangny, 1887>
A History of Western Art, p.440

과를 내기 위하여 중심 관점을 없애고 표현적인 윤곽선을 쓰며 색의 사용을 조절하고 자연적 형태들을 단순화시켰다.¹¹⁾ 이 시기의 작품들은 주로 일본의 미술품이나 의상을 모사했다.¹²⁾ 고희의 자화상 <그림 2>의 배경에 보이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들은 그 당시의 빙 상점에서 많이 거래되던 일본 판화의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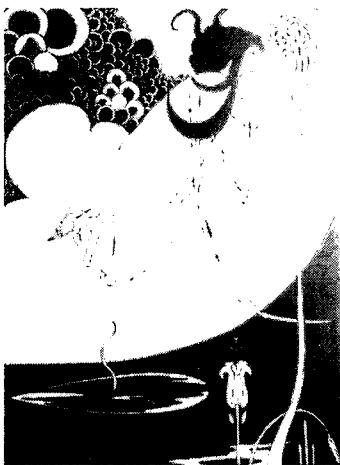
3) 데카당스

신구세기가 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기말 현상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일어나는 질서의 파괴와 신구세대의 갈등에 따른 윤리 도덕의 타락 현상과 그에 따른 성도덕의 문란과 쾌락향락주의의 만연으로 나타난다.¹³⁾ 전쟁이나 별다른 외교적 알력 없이 진행된 산업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 확장은 외면적으로 서구 사회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이게 했지만 이러한 상황의 허구를 깨달은 사람들은 ‘실증주의적 사고 방식과 인류사회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에 대한 반항의식’이 팽배하게 되었고 동시에 문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현세 부정적 허무주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쾌락주의적 특성을 보인 심미주의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반영하는 퇴폐주의(Decadence)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표출하는 예술양식의 하나인 아르누보의 관능적 환상적 표현이나 이국주의적 취향,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색조는 이와 같은 시대적 경향의 반영에 기인하는 것이다.¹⁴⁾

아르누보의 소재로는 꽃과 식물 그리고 여인이 대표적이며 곤충이나 동물도 많이 사용되었고 요정이라든가 인어, 동식물의 혼성체 같은 공상적 생물과 반인 반수에 이끌려 신비스러운 환상세계를 보여주고 다소 방종한 관능적 이상화를 추구하고서 이미지를 통해 악마적으로 마술적인 유혹의 세계를 보여준다. 신화적, 공상적 경향으로 흐르는 자기 탐닉적인 탐미주의와 세기말 현상인 데카당스를 반영

하고 있다. 아르누보의 예술가들이 직선을 피하고 소용돌이치고 교착하는 곡선을 주로 사용한 이유는 그러한 곡선을 통하여 자연 생물의 유동적 형태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려진 실재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활동의 무한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누보 곡선은 구불 구불하고 물결치는 듯하며 음악적으로 울동하는 듯하고 타오르는 듯 섬세하며 환기시키는 힘을 지닌 상징적인 선으로 나타났다.¹⁵⁾ <그림 3>에서는 종을 번식시키는 생명 창조 행위인 성생활의 문란은 종종 죽음의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곤 하는데 19세기 말의 세기말적 병리 현상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어서 죽음과 관련된 악마주의적 모티브에 많은 예술가들은 유혹을 느꼈다.¹⁶⁾



<그림 3> Aubrey Beardsley <Salome, 1894>
Symbolist Art, p.135

4) 중세풍

19세기에는 유럽 전역에 중세주의(<그림 4>)와 민족주의의 복고 운동이 전개되었다. 19세기 복고주의자들은 고딕이 인간의 종교,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포괄한다고 믿고 있었다.¹⁷⁾

라파엘전파의 선조 역시 고딕이었으나 그들의 신중한 발명적 재능은 엄격히 말해서 전혀 고딕이라고 할 수 없는 일종의 장식형을 탄생시켜 놓았다. 길버트는 라파엘전파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빌려와

서 과거의 알려진 어떠한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 곡선적인 매너리즘을 전개하였다. 비어즐리는 그 자신 특유의 흑백의 삽화를 고안하였다. 웨브와 같은 건축가는 스킨라적이고 전통적이지만 어떠한 엄격한 고학적 조상도 인정하지 않는 건물을 지었다.¹⁸⁾



<그림 4> Dante Gabriel Rossetti
<Astarte Syriaca, 1877> Symbolist Art, p.45

윌리엄 모리스와 그 후계자들의 미술 수공예 운동은 산업기술 그 자체와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중세의 수공예적 생산방법만이 아름다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행복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고 19세기 산업의 진보를 경멸했던 것이다. 미술 공예 운동을 추진했던 이상주의자들은 기계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믿었으며 산업화가 생활의 감각이나 목적을 파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공예에 탐닉하는 자세를 나타냈던 것이다.¹⁹⁾

Ⅲ. 세기말 패션과 아르누보

1. 19세기말 아르누보 패션

1) 형태

복식에서의 아르누보 양식은 1890년부터 1900년

까지 나타난 아우어 글래스(Hourglass Style), 1900년부터 1910년에 나타난 S자형 스타일(S-curve Style)을 말한다. 아르누보 영향기는 프랑스의 제3 공화국 시대에 해당되며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말기와 에드워드 7세의 에드워드인 왕조기에 속한다. 아르누보 영향기의 복식은 아르누보 운동이 국제적으로 개화되면서 버슬(Bustle) 스타일의 거대한 부풀림이 사라지고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기 시작한 1890년부터 아르누보 예술 운동이 종식되는 기간 동안에 유행했던 복식을 말한다.²⁰⁾

또한 이 시기의 라파엘전파에 의해 디자인된 개혁의상은 그들의 미술 양식과 유사하며 무엇보다 코르셋을 폐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셔츠형 의상은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케 하여 19세기와 20세기 의상 개혁가들이 추구하였던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시켰다.²¹⁾

1890년대 스타일은 버슬이 점차 사라지며 스커트 뒤에 주름이 잡혀 약간 부풀려지는 형태를 띠었다. 벌룬 슬리브(balloon sleeve)가 있는 바디스와 넓은 스커트가 허리에서 결합되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코르셋으로 꼭 조인 허리를 더 가늘어 보이게 하였다. 또한, 탑의 가슴과 소매가 강조되어지면서 디자인의 강조 부분이 바텀에서 탑으로 전환되어졌다. 1897년 거대했던 소매가 좁은 소매로 변화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엉덩이로 옮겨가고 가슴은 앞으로 돌출 되어 아우어글래스 스타일이 S자형 스타일<그림 5>로 바뀌게 되었다.

이 S자형 실루엣은 스커트의 곡선이 길게 흘러 내리며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더하기 위해 스커트 길이가 더욱 길어져 바닥에 끌렸고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유행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 이후 차츰 직선적 실루엣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나타나 1908년에는 더욱 가늘어졌고 가슴은 높아지고 엉덩이는 좁아지는 아르테코 라인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도래하였다. 새로운 스타일의 추구는 동양과 고

대 복식의 흥미를 일으켜 하렘 스타일, 기모노 스타일, 소매 없는 튜닉, 터번 등을 등장시켰다.²²⁾



<그림 5> S자형 실루엣

아르누보 양식의 길고 흐르는 듯한 유연한 곡선 감각은 신체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뿔 뽀아레(Paul Poiret)이다. 그는 과다한 장식으로 바디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실루엣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그는 하이 웨이스트와 오리엔탈풍의 기모노 슬리브를 이용한 현대적인 슬림 실루엣을 시도했으며 호블 스커트와 같이 무릎을 붙이고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하는 실루엣도 널리 유행시켰다. 이는 아르누보 운동의 일면으로 과다한 장식을 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장식을 위한 장식'에서 탈피하여 쓸데없는 장식을 배제하고 메인과 트리밍의 적절한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앞 가슴에 리본이나 레이스 장식이나 큰 어깨와 큰 소매를 강조하기 위한 어깨 장식에 보이는 주름 곡선은 아르누보의 독특한 곡선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2) 색상과 소재

1890년 이전의 어둡고 퓌퓌한 색조가 아르누보 영향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환하고 연한 파스텔 계통

의 부드러운 색조로 바뀌었다. 또한 복잡한 이중적인 색채효과를 얻기 위해 비치는 얇은 옷감이나 레이스로 오버 드레스를 만들어 튜닉 형태로 덧입기도 했다.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된 레이스와 러플은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환상적인 색채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의상에 사용된 직물은 딱딱한 울에서 바삭바삭한 실크, 반투명한 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양모가 수송력의 개선을 통해 널리 수출되면서 실질적인 의복 재료로 애호되었다. 특징적인 소재는 레이스이며 몇몇 블라우스는 전체가 레이스로 만들어졌거나 오픈 워크 장식으로 만들어졌다. 1890년 이전에는 무겁고 두껍고 뻣뻣하며 윤기있는 브로케이드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쉬폰, 오건디, 조젯, 크레이프, 얇은 린넨, 레이스 등 주로 가볍고 부드러운 재료가 사용되었다.²³⁾

장식은 실루엣의 변화와 함께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삼각형, 원, 스트라이프 등의 기하학적 무늬가 트리밍과 직물 자체의 도안에 응용되어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하였다. 아르누보 양식은 직물 자체의 도안뿐만 아니라 칼라와 양어깨, 앞뒤의 동체, 소매와 스커트의 헴라인 등의 자수와 레이스에 응용되었다. <그림 6>²⁴⁾



<그림 6> 데이드레스 빅토리아패션, p.96

1900년대가 되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정교한 장식을 의상에 많이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고급 자수, 비드, 브레이드, 레이스가 많이 부착된 화려한 복식은 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고 여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복식으로 표출하려고 레이스, 러플을 많이 사용하였다. 아르누보 영향기의 복식에 사용된 직물을 보면 꽃 문양과 곡선 무늬가 많이 보인다. 아르누보의 식물문양이 모든 여자와 여아의 의복에 등장하였다.

2. 20세기말 패션 트렌드와 아르누보

세기말을 앞두고 세계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와 수자원 부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은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대기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현대인들을 점점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대는 가치관의 혼란시대로 개방화와 변혁으로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신적 소외감과 스트레스의 탈피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와 자아실현의 갈망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²⁵⁾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능적·기계주의적·획일적인 서양복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왔으나 최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 등지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족풍(ethnic look)이 트로피칼룩, 에콜로지풍과 함께 새로운 패션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 원시성에 대한 향수가 복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²⁶⁾ 이는 19세기말의 아르누보적 경향과 맞물리는 것이다.

20세기말의 패션 경향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혼합 접목되어 있는데 아르누보적 패션 트렌드는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경향과 관련되는 '에콜로지', 19세기 아르누보의 대표적 경향인 '데카당스'와

이국취향과 관련되는 '로맨티시즘', '에스노'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유행경향이 혼합된 '퓨전'이 있다.

1) 로맨틱시즘(Romanticism)

1992년 지아니 베르사체 (Gianni Versace) 등에 의해 바로코, 로코코풍의 컬렉션이 시도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 패션계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복고적 분위기의 하나는 로맨틱시즘이다. 문명이 더욱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본성을 짐차 잃어가고 있는 80년대의 반성이 로맨틱시대를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다. 낭만주의는 중세의 부흥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낭만주의 시대의 복식 역시 중세 풍과 오리엔탈풍이 주를 이루었다.²⁷⁾

98년 추동 패션 트렌드를 보면, 세기말을 앞두고 과거의 꿈과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는 화려한 노스탈지어가 대두되고 있다. 마리앙트와넷의 폴로네이즈 수트와 콜셋 드레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전에 파리 사교계를 주름잡던 귀부인들이 타임캡슐 속에서 깨어나 21세기와 랑데뷰하는 분위기로 모든 컬렉션의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아트 & 크래프트'라는 패션 테마에서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미의식 운동이며 아르누보 예술의 발생배경이 되는 것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최신 현대 패션에서 미술공예운동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미니멀리즘에의 반동으로 형성된 미의식으로서 이미 97년부터 로맨틱시즘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드 자수와 빛나는 돌, 곡선적인 꽃무늬의 모티브 등이 등장하여 트렌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티브로서 미술공예운동 본래의 특징적인 무늬인 모리스의 벽면 무늬와 동시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아르누보의 곡선적인 무늬가 대두되기 때문일 것이다.²⁸⁾

과거에 것에 대한 향수에 따라 시대 문화를 초월하는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복고는 크게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고전적인 스타일의 재현, 전원적인 주

제의 재현, 중세에서 그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에 입혀진 의상의 재현, 그리고 이국적인 민속복을 바탕으로 한 서양 패션으로 전환된 장르 등 네 가지로 분류된 바 있는데 이 중 중세적 복고<그림 7>는 두 번째 스타일인 전원적 주제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세는 19세기말 아르누보의 특성인 중세주의 복고운동과 맞물리는 것으로 끝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시기 중 중세를 현대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게 된 데는 추의 미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표현기법 및 정신사적 배경과 관련된다.²⁹⁾



<그림 7> '97-98 FW [Vivienne Westwood] Collezioni N.58, p.289

2) 소프트 데카당스(Soft Decadence)

신·구 세기가 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기말 현상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일어나는 질서의 파괴와 신·구 세대의 갈등에 따른 윤리 도덕의 타락 현상과 그에 따른 성도덕의 문란과 쾌락 향락주의의 만연으로 나타난다. 현대에도 세계예술의 영화, 팝 음악, 출판계 등에서 섬뜩하고 황폐한 현대의 정신세계에 일맥을 둔 작품들을 '세기말적 현상'의 하나로 보려는 분석이 나왔다. 21세기를 앞둔 오늘, 패션에서도 다시 퇴폐적인 느낌, 옷모양이 보이고 있다.³⁰⁾

Fashion Color는 '98 F/W 유행 경향 중 Soft Decadence에서는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등 과거의 다양한 장식 양식에 인스피레이션을 얻은 고저스하고 페미닌한 패션을 제안하고 있다.³¹⁾ '99/00 Nelly Rodi에서는 정교하고 섬세한 문화의 발자취가 담긴, 고색창연하고 녹슨, 역사로 가득한 미래적 데카당스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8> '98 S/S [Thierry Mugler]
Collezioni N.60, p.249

20세기말 데카당스한 패션으로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아르누보 패션으로는 곤충 모티브<그림 8>, 데카당스한 이미지의 꽃을 이용하거나 요동하는 곡선을 이용한 디자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99/00 컬렉션에서는 세기말 패션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의 데카당스라기 보다는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밝은 의미의 데카당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패적인 감각을 도입하고 퓨전적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3) 에콜로지(Ecology)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90년대에 자연주의 패션이 유행하였는데 실루엣 뿐 만이 아니라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도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ecology)을 표현한 자연 문양<그림 9>이 발달하였

다. 자연을 소재로 한 패션경향은 90년대에 새로운 것이 아니고 1900년경의 아르누보 시대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식물 문양의 유기적 곡선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9> '97-98 F/W [Dolce & Gabbana]
Collezioni N.58, p.103

90년대 자연회귀현상은 식물 문양 중에서도 꽃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90년대 꽃문양을 이용한 자연회귀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자연 그대로의 꽃 문양을 화려한 색채적 감각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분해, 재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²⁾ 에콜로지가 패션 테마로 등장하면서 아르누보 시기에 자주 사용되던 자연주의적 모티브인 곤충, 나비, 꽃, 식물 모티브가 다시금 유사한 시대 분위기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4) 에스노 (Ethno)

에스노룩은 '에스닉 패션'과 '테크노 패션'의 합성어인데 에스닉은 '인류학적'이라는 뜻과 함께 '민속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게 쓰여지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속 의상 스타일을 가리켜 에스닉이라 정의 내려왔다. 따라서 에스닉이란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수,

액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을 말하며 특히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토속적이며 소박한 느낌을 주는 옷들을 가르킨다. 패션의 경향에서는 80년대 중반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원색의 코디네이션과 트로피컬 컬러, 플라워 프린트를 특징으로 한다.

에스노룩은 기존의 에스닉 이미지에 기교적이거나 기술적인 변형을 가한 것이다. 트로피컬 컬러에 옵아트와 연속적인 기하학적 분위기를 넣는 것, 플라워 프린트의 연속적인 배열, 또는 에스닉 스타일에 코팅 소재나 첨단 소재를 사용하는 것<그림 10> 등을 예를 들 수 있다.³³⁾ 에스노는 현재 패션의 키워드인 '양면성의 공존'에 기인한다. 어두움과 밝음,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이러한 상반된 개념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듯이 에스닉이 이질적인 개념인 테크놀로지와 만나 새롭게 보여진다.³⁴⁾



<그림 10> '98 F/W [Christian Dior] Collezioni No.60, p.195

5) 퓨전 (Fusion)

단지 모델이 기모노를 입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미술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모네의 작품 '일본 의상을 입은 여자'를 보면 새삼 동양미에 대한 서양의 호기심과 관심이 꽤 오래됐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모네 뿐 아니라 클림트, 반 고흐 등 적지 않은 화가들이 동양의 아름다움에 반해 직접 일본

과 중국에서 만든 판화나 민화를 수집하거나 급기야 그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작품 속에 동양을 그렸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은 자신들이 자란 세계와 전혀 다른 동양의 선에 심취되어 자신들의 예술로 승화시킨 것으로 볼 때 '퓨전(fusion)' -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 생각이나 무리의 조화, 조합 또는 함께함 - 은 이미 1백년 전에 시작된 셈이다. 그로부터 1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소수 예술가들이 손이 아닌 다수 대중의 손에 의해 벌어지는 퓨전의 영향력을 런던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존 갈리아노를 선장으로 두고 있는 디올도 이번 시즌은 19세기말의 중국풍과 유럽풍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많은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유로운 티베트의 이미지가 새롭게 부상하며 퓨전 패션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패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퓨전은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냉혈적인 미니멀리즘에서 서서히 탈피한 크로스오버적이고 다분히 로맨틱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³⁵⁾ <그림 11>은 동·서양의 조화, 고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의 공존으로 퓨전 스타일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림 11>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영화의상 Vogue Korea No.34, p.245

IV. 20세기말 아르누보 패션 작품 분석

1. 작품분석

20세기말의 아르누보 패션은 아르누보의 발생 당시의 유사한 상황과 더불어 앞장에서 살펴본 20세기말의 유행경향인 로맨티시즘, 소프트 데카당스, 에콜로지, 에스노, 퓨전이라는 테마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아르누보 패션 작품을 표현 특성에 따라 아르누보 문양, 아르누보 형태미, 아르누보 예술작품 프린트, 그리고 아르누보 작품에서 자주 등장되는 요부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아르누보 문양

(1) 자연물 모티브

19세기말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으로 자연주의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식물, 동물, 인체를 소재로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를 표출한 바 있다.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아르누보적 표현은 자연물 모티브를 들 수 있는데 꽃 모티브가 대표적이며 곤충, 식물 모티브도 나타난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현대 패션의 흐름은 자연물을 오브제화하여 복식의 구조에 이용하여 그 형태를 변형시키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꽃, 새, 나비 등의 자연물을 오브제화하여 복식의 구조적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는 지방시(Givency)가 98년 춘하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19세기말 아르누보 작가인 르네 라릭이 즐겨 모티브로 사용하던 나비가 현대 패션에서 자연주의의 경향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19세기말 자연주의의 경향으로 자연물 모티브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티브가 나비였었다. 19세기말은 브로치로 디자인되었지만 현대 패션에는 환상적 유미적인 이미지 표현으로 응용되고 있다. 현대 장신구를 거론할 때 가장 혁신자이며 창조적인 르네 라릭(René Lalique)은

잠자리, 벌 등을 보석 세공으로 이용한 대표적 작가이다. 아르누보 작가들은 요정이나 동, 식물 곤충을 혼합하여 인간의 신체와 일치되어 나타나는 상징적이고 유미주의적인 환상세계를 보여주었다. 곤충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염색의 패턴, 건물의 외양장식, 편지의 오프너에 이르기까지 장식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다.³⁶⁾



<그림 12> '98 S/S [Givency] Collezioni No.63, p.247

(2) 유기적인 곡선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직선을 피하고 소용돌이치고 서로 교착하는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곡선을 통해서 자연 생물의 형태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려진 실재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활동의 무한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누보의 곡선은 구불구불하고 물결치는 듯하며 음악적으로 울동하는 듯하고 흐르는 듯하며 타오르는 듯하고 섬세하며 환기시키는 힘을 지닌 상징적인 선으로 나타났다.³⁷⁾

20세기말 패션 컬렉션에서 아르누보 시기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스타일의 유기적인 곡선이 패션에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은 '99/00 F/W 컬렉션에 발표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양식인 유기적인 곡선이 미래적인 감각과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타셀하우스 내부의 곡선과 계단의 곡선 장식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림 13>'99/00 F/W [Alexander McQueen]
Collection III, p.15

2) 아르누보 복식의 형태미

19세기말의 아르누보 여성 복식은 높은 칼라, 긴 소매, 바짝 졸라매어진 허리와 버슬을 넣어 부풀린 스커트 등이 특징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19세기말의 스타일이 100년이 지난 20세기말의 현재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드워드안 스타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후기 로코코 시대에 등장했던 르탱고트 스타일, 낭만적인 남성형 의복 스타일, 영국의 승마복 의복 스타일 등을 포괄한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에드워드안풍은 당시 스타일의 재현이라기 보다는 여러 요소와 함께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스타일면에서 과거보다 좀 더 여성스럽고 낭만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소재도 벨벳이나 자가드, 타피스트리, 레이스와 실크 등 화려한 느낌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가드나 실크 등의 소재가 본래 동양에서 전래된 것으로 서구인의 시각으로 볼 때 지극히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재라는 점에서 에스닉이나 오리엔탈 룩과 연결되기도 한다.³⁸⁾

<그림 14>는 '98 F/W에 발표된 크리스티앙 라크

르와(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코르셋과 버슬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디자인되었으며 특히 엉덩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 표현하였다.



<그림 14>'98 F/W [Christian Lacroix]
Collezioni No.60, p.230

3) 예술작품 프린트

아르누보의 특징인 장식적이고 단순화된 모티프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 아르누보 시기의 작품들이 20세기말 패션 컬렉션에서 자주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작품에 나타나는 데카당스한 이미지가 그대로 의복이미지에 부여되기도 하는데, 아르누보 시기의 작품 전체가 그대로 의복 프린트로 응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분적인 모티프들이 의복 프린트로 응용되기도 한다.

아르누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은 에로틱하면서도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 많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20세기말 패션 컬렉션에서는 세기말이라는 의식과 함께 특히 19세기말의 데카당스한 작품들이 응용되고 있다. <그림 15>는 마틴 시봉(Martine Sitbon)의 카타로그 사진으로 배경이 되는 의자와 의상 모두에 클림트의 '생명 의 나무'라는 작품이 응용되고 있다.



<그림 15> L'année de la Mode, p.175

4) 요부이미지

아르누보 시기의 여성을 표현할 때에는 관능적인 시각의 여체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형상, 즉 마녀(Femmes Fatales), 마돈나(Madonna), 이브(Eve), 살로메(Salome), 스피нк스(Sphinx) 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한 세기 이전 1890년대는 퇴폐를 미학적 이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100년 후인 1990년대의 패션은 벗음과 폐허의 모델을 창조의 근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며 이는 곧 표현주의의 근원에서 비롯되어진 세기말적인 데카당스한 그로테스크의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³⁹⁾

아르누보는 전 시대의 기독교적 '라파엘 전파'나 반세속적 '예술공예운동'에서 표현된 도덕주의와는 달리 당시 유행한 퇴폐적 '심미주의'와 감각적 '상징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자연과 여성의 모티브로부터 해석한 에로틱한 유기체적인 곡선을 아르누보는 선호하였다. 특히 오브리 비어즐리의 그래픽은 새로움보다 주제가 표현하는 데카당스한 탐미성으로 더 유명하다.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세페 요한의 목을 치는 살로메를 위시하여 그는 빅토리아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에로티시즘과 성도착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시대의 위선적인 규범을 마음껏 비웃었다.

같은 시대적 환경 때문인지 20세기말 컬렉션에서는 아르누보 시기의 여성상인 요부이미지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나고 있다. 98년 발표된 비탈 사순의 켈틱헤어스타일, 데카당스한 메이크업과 시스루 패션, 헤어를 전체적인 의상으로 응용한 디자인 등 당시 아르누보 회화에 등장한 요부이미지가 20세기말 컬렉션에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은 '99/00 F/W 컬렉션에 발표된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의 작품으로 아르누보 시기의 화가인 비어즐리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상과 유사한 면이 많으며 고딕풍의 헤어스타일과 시스루 패션, 그리고 평면화된 유기적인 곡선을 통하여 당시에 자주 등장하였던 요부이미지를 의상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 '99/00 F/W [Antonio Berardi] Collection I, p.443

2. 분석결과 및 고찰

20세기말 아르누보 패션의 표현 기법을 크게 아르누보 문양의 재현, 아르누보 형태미의 도입, 아르누보 예술작품 프린트, 그리고 아르누보 작품에서 자주 등장되는 요부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은 20세기말 아르누보 패션 기법을 아르누보 시기 당시의 표현특성과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20세기말 아르누보 패션의 표현기법

표현 기법	표현 특성	표현 방법	대표적 디자이너	관련 패션 트렌드
아르누보 문양	자연물 모티브-나비와 꽃이 대표적 유기적 곡선	자연물의 오브제화 환상적 유미적 이미지 표현. 아르누보 영향기의 문양재현. 유기적 곡선의 문양화. 아르누보 문양의 악취미적인 표현.	John Galiano Prada Givency Alexander Mcqueen	에콜로지 소프트 데카당스 에스노
아르누보 형태미의 도입	아르누보 실루엣인 S자형 실루엣의 재현으로 엉덩이를 강조한 형태	버슬, 에드워드안 스타일. 르맹코트등 낭만주의시대의 남성 의복 스타일의 현대화.	Vivienne Westwood Christian Lacroix	로맨티시즘 퓨전 소프트 데카당스
아르누보 작품프린트	아르누보 대표 화가의 작품을 전체 의복의 모티브로 작품의 부분을 의복의 모티브로 변형하여 응용	클립트 알폰드 뤼사 작품의 프린트	Christian Dior Louis Feraud Martin Sitbon	로맨티시즘
요부이미지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주제인 여성상인 요부 이미지 도입	머리카락을 강조하여 표현 데카당스한 메이크업 헤어로 의복을 구성. 아르누보시기에서의 요부 이미지. 헤어스타일, 메이크, 시스루, 켈틱 헤어 스타일, 꽃자수 응용	John Galiano Givency Antonio Berardi Jean Paul Gaultier	소프트 데카당스

첫째, 아르누보 문양을 의복의 모티브로 도입한 경우인데 이것은 자연주의적 모티브와 유기적 곡선 모티브가 대표적이며 특히 자연주의적 모티브의 경우 꽃과 나비가 대표적이며 유기적 곡선의 경우 회화에서 보이는 다양한 곡선이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존 갈리아노, 프라다, 지방시, 알렉산더 맥퀸을 들 수 있다.

둘째, 아르누보 형태미를 도입한 경우인데 아르누보 시기의 S자형 실루엣의 재현인데 20세기에 재현된 아르누보 실루엣의 경우는 엉덩이 부분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티앙 라크르와가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셋째, 아르누보 작품이 의복의 프린트로 응용된 경우인데 클립트의 작품이 대표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의복 전체에 프린트로 응용되거나 회화의 일부가 프린트로 응용되기도 한다. 크리스천 디올, 루

이스 페라우드, 마틴 싯봉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르누보 작품에 등장하는 요부이미지를 전체적인 이미지와 메이크업, 의상에 응용한 경우이다.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주제인 여성의 머리카락을 강조하여 표현하거나 데카당스한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로 의복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존 갈리아노, 지방시, 안토니오 베라르디, 장 폴 고티에를 들 수 있다.

V. 결 론

결론적으로 20세기말 유행경향으로 나타난 아르누보 패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공예 회복을 주장하는 미술수공예운동의 영향으로 아르누보는 자연주의적 경향을 특징으로 하며, 이것은 20세기말 'Art & Craft'라는 구체적인

패션 테마로 등장되어 그 표현기법으로는 꽃, 새, 나비의 자연물을 오브제화하고 아르누보 문양을 재현하는 기법으로 나타나 현대 패션에 관련되고 있다.

둘째, 19세기말 아르누보 영향기의 복식은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경향으로 버슬 스타일의 거대한 부풀림이 사라지고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S자형 실루엣을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20세기 말에는 로맨티시즘이라는 유행 테마로 등장하여 콜렉션에서 엉덩이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재현되었다. 20세기말에 재현된 아르누보 실루엣의 경우는 아르누보 시기의 실루엣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기보다는 세기말의 섹스존이라고 하는 엉덩이 부분만을 특히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셋째, 상징주의의 영향인 아르누보의 이국취향의 특성은 중국, 일본, 켈트, 중세시기 등의 영향이며 이러한 아르누보의 특성으로 19세기말 아르누보 복식에서 하렘 스타일, 기모노 스타일, 터번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세기말에는 19세기말과 유사하게 에스노, 퓨전과 같은 유행 테마로 이국 취향이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동양적인 꽃 모티프를 유기적이며 또한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부적 관능미를 표현하였던 라파엘 전파의 영향과 그로테스크한 곤충 모티프와 연속적 곡선을 주로 사용한 상징주의의 영향으로 아르누보는 데카당스한 특성을 지니며, 20세기말에는 소프트 데카당스라는 유행 테마로 콜렉션에서 재현되어 나타났다. 예로는 그로테스크한 곤충모티프, 반인반수 이미지, 데카당스한 곡선 모티프의 타투, 켈틱 헤어스타일, 시스루 패션,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 등의 기법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특히 헤어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19세기말 화가의 작품을 프린트로 응용하여 데카당스한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점에서 패션 트렌드로 나타난 아르누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논리로서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는 '유기체적 디

자인',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근의 '에코 페미니즘 디자인'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탈역사적 디자인 개념이라는 점이 자못 의미심장하며 서양의 아르누보를 넘어선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아르누보로 거듭나면서 모던 혹은 포스트모던 디자인이 남기고 간 숙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경춘사, 1995
- 고명진, 현대 장신구에 있어서 아르누보의 영향,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이상례,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음화 현상, 복식 35호, 1997년 11월
- 방근택 저, Art Encyclopedia I, 한국미술년감사, 1985
- 정향진, 아르누보 아르데코 일러스트레이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0
- 장은영, 아르누보의 대중성과 현대 포스터, 숙명여대 석사논문, 1976
- 김지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 경향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5
-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1988
- 이화현대미술연구회 엮음, 현대미술의 동향 2, 눈빛, 1994
- 도널드 레이놀즈, 19세기의 미술, 예경, 1998
- 안선경·양숙희,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Vol. 23, No. 1, 1999
- 임석재 지음, 장식과 구조 미학: 불어권 아르누보건축 I, 문예마당, 1997
- F. P. 챔버스저, 미술: 그 취미의 역사, 예전사, 1995
- 우도 클터만, 예술 이론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
-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6
- 에리카 털저, 양숙희 편역, 복식과 예술, 교학연구사, 1997
- 김문숙 저, 빅토리안 패션, 경춘사, 1999
- 강희경,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1998년 5월
- 김민자·하지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양식, 복식 21호, 1993년 11월
- 조말희, 현대 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3호, 1988
- 정홍숙·정삼호·홍병숙, 현대인과 의상, 교문사, 1998
- 배지완, 곤충을 모티프한 미술의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1

- 한국섬유신문, 1998/4/13
 - Edward Lucie-Smith, Symbolist Art, Thames and Hudson, 1986
 - Susan A. Sternau, Art Nouveau, Tiger, 1996
 - Illust, No.8, 1998/Summer
 - Collezioni Donna, No.40, 58, 60, 63
 - Collections I, III, '99/00 F/W
 - Fashion News, Vol.40
 - Vogue Korea, No.34
 - Fashion today, 패션정보사, No.76
 - Fashion Color, No.60
-
- 1)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142
 - 2) 고명진, 현대 장신구에 있어서 아르누보의 영향, 서울대 석사논문, 1988, p.4
 - 3) 이상례,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 35호, 1997년 11월, p.326
 - 4) 방근택 저, Art Encyclopedia I, 한국미술년감사, 1985
 - 5) 정향진, 아르누보 아르데코 일러스트레이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0, p.4
 - 6) Illust, No.8, 1998/Summer, p.68
 - 7) 장은영, 아르누보의 대중성과 현대 포스터, 숙명여대 석사논문, 1976, p.6
 - 8) 김지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 경향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5, p.29
 - 9) 고명진, op. cit., p.8
 - 10)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1988, p.53
 - 11) Ibid., p.48
 - 12) 이화현대미술연구회 엮음, 현대 미술의 동향 2, 눈빛, 1994, p.15
 - 13) Donald Reynolds, 전혜숙 옮김, 19세기 미술, 예경, p.122
 - 14) 정홍숙, op. cit., p.45
 - 15) 안선경 · 양숙희,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Vol. 23, No. 1, 1999, p.151
 - 16) 임석재 지음, 장식과 구조 미학: 불어권 아르누보 건축 I, 문예마당, 1997, p.23
 - 17) F. P. 챔버스저, 미술: 그 취미의 역사, 예전사, 1995., p.230
 - 18) 우도 쿨터만 지음, 김문환 옮김, 예술 이론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 p. 174
 - 19)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6, p.47
 - 20) 정홍숙, op. cit., p.139
 - 21) 에리카 킬저, 양숙희 편역, 복식과 예술, 교학연구사, 1997, p.83
 - 22) 김문숙 저, 빅토리안 패션, 경춘사, 1999, p.90
 - 23) Ibid., p.92
 - 24) 정홍숙, op. cit., p.34
 - 25) 강희경,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1998년 5월, p.217
 - 26) 김민자 · 하지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 21호, 1993년 11월, p.193
 - 27) 채금석, op. cit., p.140
 - 28) 한국섬유신문, 1998년 4월 13일
 - 29) 채금석 저, op. cit., p.124
 - 30) 안선경, op. cit., p.56
 - 31) Fashion Color, No. 60, p.56
 - 32) 조말희, 현대 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3호, 1988, p.168
 - 33)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현대인과 의상, 교문사, 1998, p.125
 - 34) Fashion Today, No. 76, 96년 8월, p.46
 - 35) Bazaar, 8월, 1999, p.68
 - 36) 배지완, 곤충을 모티브로 한 미술의상,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1, p.14
 - 37) 정홍숙, op. cit., p.47
 - 38) 채금석, op. cit., p.142
 - 39) 채금석 저, op. cit., p.348